

지난 7월말이었다. 여름휴가전의 잔무를 정리하고 모든 직원과 휴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FAX가 한장 날아왔다.

8월16일까지의 기한으로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지명 설계 경기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에서는 92년에 서울시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적 공모하여 21개 사무소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설계경기를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계획안은 좋으나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경험으로 설계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추첨을 통하여 설계자를 정하고 설계를 진행하여 우리 사무소는 서울 시립대 종합문화관을 설계한 바 있으며, 94년에는 다시 실적 공모하여 22개 사무소를 선정하여 지명 설계 경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간도 20여일간으로 짧았지만 설계 경기기간이 휴가기간에 며칠 빠앗기게 되어 실제 계획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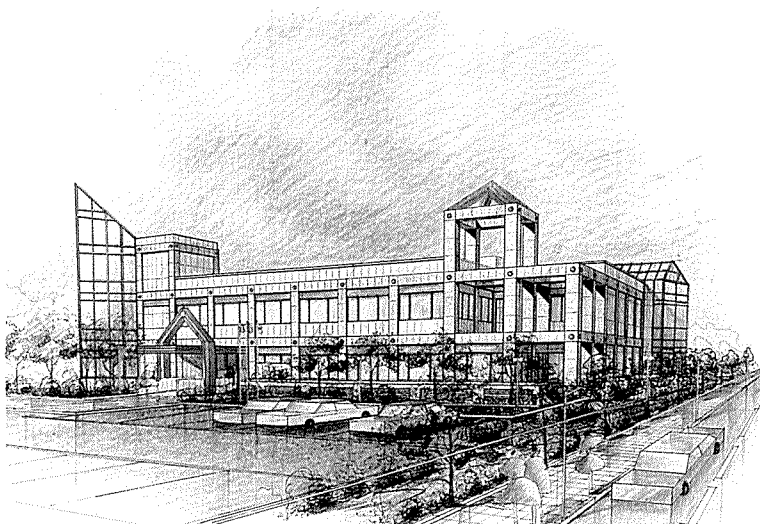
## 북부 장애인 종합 복지관

The Disabled Welfare Center

禹時庸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by Wooh Si-Yong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70여평, 예산은 29억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고, 공간에 근무하던 시절인 80년초 고덕에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의 설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자료수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졌다. 설계 경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여 등록을 하고나니 다행히 설계 과장중 1명이 휴가를 연기하고 기초 자료 조사 및 계획 스터디를 휴가중에 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현장조사를 나섰다. 대지는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로 대지 안에는 뇌성마비종합복지관(3F), 서울맹인복지회관(3F), 서울상이군경복지관(2F), 북부청소년임대 APT(5F) 등이 들어서 있는 일단의 장애인 시설 단지로서 뇌성마비종합복지관과 서울상이군경복지관의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이 계획대지(64m×45m)로서 북측에는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대지와 인접해 있는 뇌성마비복지관, 맹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최근에 증축된 서부장애인복지관 등을 조사하여 설계지침상 주어진 요구실들의 성격과 기능, 소요공간을 파



악하는 등 자료수집이 수일간 계속되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의 목적은 동북부지역 장애인의 자립기반확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사회교육, 장애예방 등 중요사업을 추진하며, 초기계획의 배경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정신 지체자를 위한 시설기능을 보강하면서 건립부지 인근의 상이군경복지관, 서울맹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과 상호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대지분석결과 북측이 근린공원으로 열린 조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이군경복지관과 뇌성마비복지관, 북부청소년임대APT로 둘러싸인 외부공간을 계획되는 건물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어진 요구조건과 각 소요공간의 파악 등으로 계획의 몇가지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개방적이고 친근한 느낌의 부여로 접근성 및 인지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올바른 이미지를 부여하기로 하고, 둘째로 기능별 동선의 분리 및 연결로 인한 공간 사용 극대화 및 시설이용의 편리화를 유도하며, 셋째로 모듈에 의한 계획으로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추후 기능별 재배치가 가능토록 하며, 넷째로 장래 증축을 위한 고려 등이었다.

계획의 방향으로는 장애인 공동체 공간으로 밝고 개방적인 내외부 공간을 확보하며, 힙찬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형태구성의 의미로 수평, 수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장애인 시설로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각 기능간 내외부 공간의 편리한 연결 동선을 제공하여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대지의 특성상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신 지체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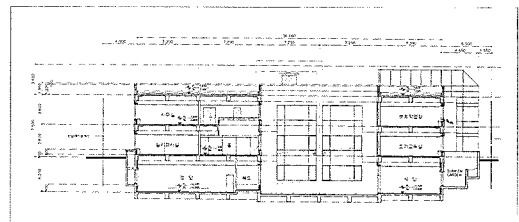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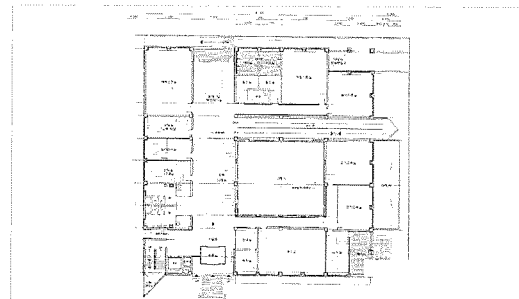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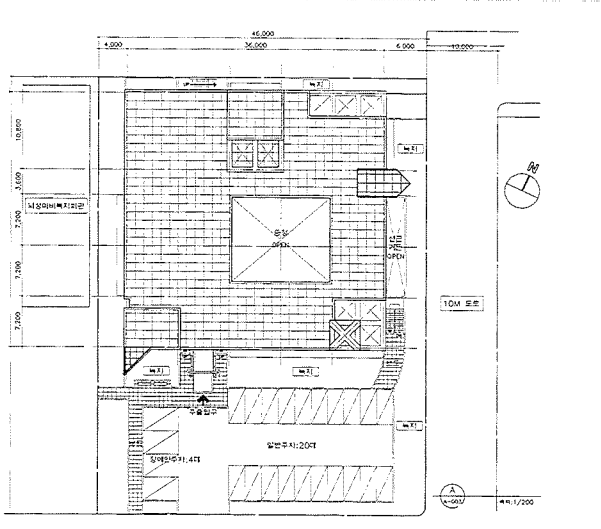
위한 시설로서 다방면의 정면성을 확보하며 주위 환경과 조화되면서 휴먼스케일의 건물이 되도록하며,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물로서 유지관리를 고려하는 건물로 계획하기로 하였다.

각 소요실의 배치는 다음과 같은 단면 개념하에 정리하기로 하였다. 1층은 이용도가 많은 상담 및 치료기능을 배치하고, 2층은 사무 및 사회교육기능을 배치하며, 지하층은 강당, 식당 등 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대지분석 결과로 대지 전면의 Open Space를 주위 건물과 공유함에 의하여 건물이 정방형이 됨에 따라 중심공간의 자연채광이 어려움으로 건물 중앙에 중정을 두고 그 주위에 기능실을 배치하여 채광 및 환기가 가능토록하고, 1층의 내부 오픈 스페이스인 홀과 외부 오픈 스페이스인 중정의 시간적 공간적인 연결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효과를 기대하고 아뜨리움 홀과 연관을 갖게하며 1층에서의 이용도를 높게 계획하였으나 기본설계시 중정을 지하층에 두어 강당과 식당에서 휴게 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복지시설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을 설치하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 경사로는 장애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교육훈련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층에 부모대기실 휴게실을 북측에 두어 근린공원으로의 조망성 확보와 연결을 고려했다. 평면 모듈은 실제로 가구 및 집기의 배치가 가능하며 용도 변화에 순응이 가능한 7.2m×7.2m를 기준으로 하여 3.6m×7.2m, 7.2m×10.8m로 하였다.

외부형태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의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부여하며, 건물 외부에 강렬한 색의 부분적인 사용으로 시력이 약한 사람도 강한 느낌을 주어 건물의 인



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수직, 수평선을 강조하여 건물이 간결한 느낌이 들며 형태를 분절시키고 계단 및 경사로의 천장, 모든 방향에서 Visual Target가 될 수 있는 헛기둥과 헛보에 의한 Pyramid 등으로 진입방향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계 경기에서 당선작으로 확정된 후 서울시종합건설본부 실무자, 서울시 사회과, 고덕 장애인복지관 기획실장 등 장애인 복지 관계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각 소요실의 용도를 확정하고 장애인 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되게 되었다. 설계과정중 무엇보다도 보람있었던 것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과 실무자들이 디자인에 관한한 설계자를 전적으로 지지해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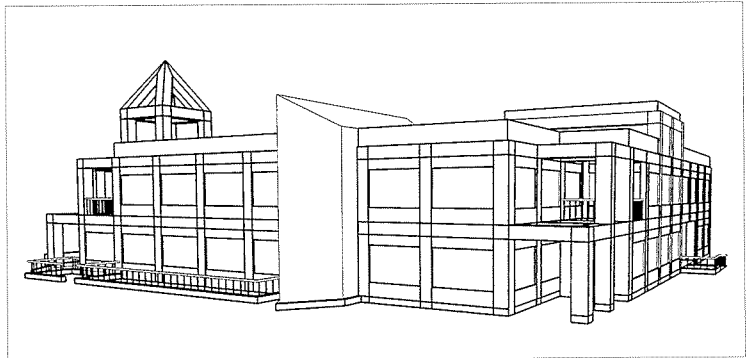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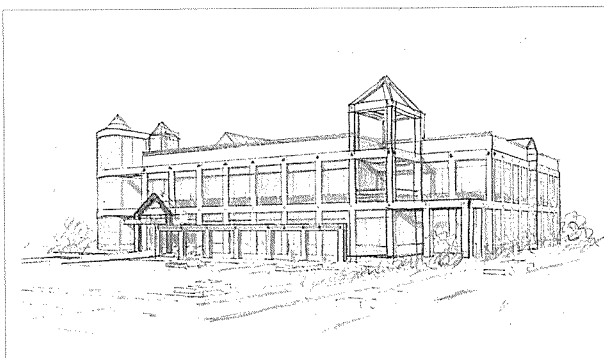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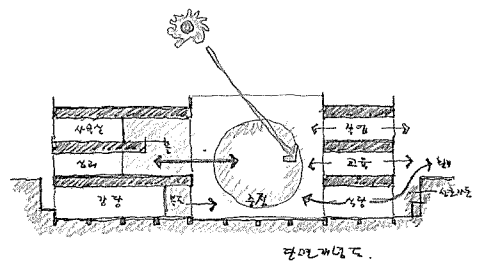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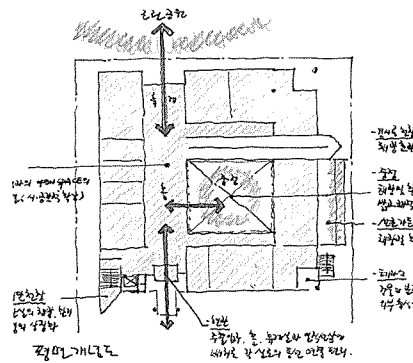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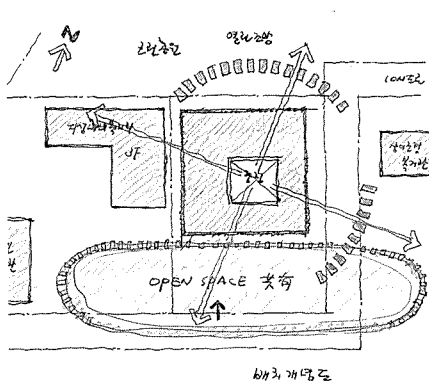
열심히 설계한 때문인지 예산의 상당액이 당초보다 초과되어 걱정을 많이 했으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서울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공사발주시 성실한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여 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공사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쉬웠던 점은 내 자신이 장애인이 아님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며 최신 정보에 의하여 설계를 하였지만 과연 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건물을 설계하였나 하는 점이다. 장래 증축이 되었을 때의 입면 스테디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장애인 시설의 특수성 및 이용의 편의성이 우선되어 다양한 내부공간을 계획하기가 어려웠던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건물을 설계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를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보다 크나큰 짐을 더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복지가 미약한 환경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의 가족들도 많은 좌절과 고통, 그리고 불편함을 겪는 일은 흔한 일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사라져야 할 커다란 편견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거나, 또 있다면 일정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들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장애인 하면 우리들이 봉사대상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이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들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제 가족들의 짐이 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떳떳한 생활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꾸려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의 도움이 순간에는 좋을 지 모르지만 끝내는 자신의 존재와 자존심을 빼앗아가는, 굴레라는 것을 이젠 장애인들도 알기 때문에 치료와 사회교육을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들도 자립의식을 가져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도 이제는 사회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도  
록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하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  
무 생각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정상이란 우리들의 집  
단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르고 떳떳하고 건전  
하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  
태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행  
동거지나 정신발육이 정상인과 다른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은 정상인 처럼 행동하나 남을 속이  
고 거짓말을 딱딱듯이 하는 습관에 젖어있는 비정상인  
을 우리는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께서 어른들에게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  
신 것 같이 행동거지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같은 순  
진한 장애인들을 우리가 어린이 보살피듯 보살피 주  
어야 할 것이다.

근대 정신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요, 인간 본위의 정신  
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세울 때에도 장애인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교통시설이나 각종 건축 등 공공  
시설의 설계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당연한 일을 먼저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들이 정상인이라고 자처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을 갖는 일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집단 시설을 지어주고는 마치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무인도와 같  
은 집단 시설에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북부  
장애인복지관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을 우리들의  
이웃으로 끌어내어 같이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  
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  
지고, 아이들이 장애인의 행동거지를 흉내내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우리들의 사회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자  
기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탓인가 보  
다.

우리의 사회생활이 복잡해질수록 교통사고, 질병, 약  
물중독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  
을 직시하여야 한다.

“병든 육체보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병든 마음이 더  
큰 병”이라고 말한 테레사 수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기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성숙이 아직 덜 되었  
나보다.

